

번역비평에서 오역지적의 문제

이 인 규
(국민대)

1. 오역과 오역지적(질)

오역은 번역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걸림돌이다. 번역가 이종인은 오역을 번역가가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으로 단정하면서 “오역은 번역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다. 식품으로 따진다면 오물 들어간 음식이요, 술로 따진다면 캡틴 큐를 위스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역”이라고 말한다(이종인 63: 108).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귀한 손님에게 내준 식품이 오물 들어간 음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질 낮은 싸구려 양주를 고급 위스키인 줄 잘못 알고 존경하는 이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 더구나 그 사실이 타인에 의해 밝혀지고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비난과 질타를 한 몸에 받을 뿐만 아니라 종내에는 인간적인 멸시와 함께 부자 격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한 것인가? 이종인이 말하는 번역자의 오역에 대한 부끄러움과 공포는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을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기에 번역가는 “문장 하나하나를 읊길 때마다 ...

살얼음을 밟는 삼엄한 느낌”을 느끼면서 “차마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얇의 한계를, 일천한 지식과 자격 미달자의 실패를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기고”(김선형 2008: 64) 말 것에 대한 두려움에 늘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번역가이자 비평가인 조재룡의 다음과 같은 탄식이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공포의 대상으로서 오역이 갖는 그러한 위력과 본질이다.

오역은 분명 번역에서 가장 기피되어야 할 무엇, 번역이,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좀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감추지 못해 왔던, 가장 민감한 부스러미이자 실패를 통고하는 죽음의 높이 아니었던가? (조재룡 2011: 379)

번역가에게 이런 공포의 대상인 오역은 번역 텍스트 속에서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발생한다. 첫째, 단어나 어구 차원에서 의미를 잘못 옮긴 경우가 있고, 둘째, 수식관계나 문장 구조 등 문법적 사항을 잘못 파악해 절이나 문장 차원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앞뒤 문맥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내용의 일부가 엉뚱한 의미로 옮겨진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유형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어떤 번역을 오역, 즉 그릇되거나 잘못된 번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번역문의 의미가 원문의 단어나 문장이 지닌 의미와 명확하게 어긋나는 현상이 일어날 때이다. 그런데 사실 어떤 번역이 오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역이 발생하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오역이 발견되는 순간이다. 누군가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며 읽고 그 차이를 발견하지 않는 한 오역은 번역의 한 부분으로 텍스트 속 어딘가에 이름 없이 묻혀있을 뿐 ‘오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착되거나 인식될 수 없다. 따라서 오역이 오역이기 위해서는 발견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역은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자가 미처 모르고 범하는 잘못이므로 오역의 발견자는 거의 항상 번역자가 아닌 다른 사람, 즉 번역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게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자가 아닌 타자가 오역을 발견하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견된 그 오역은 공개적으로 지적되고 알려지기 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종의 잘못된 행위로서 오역은 정오, 즉 맞고 틀림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견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종의 도덕적 욕망을 느끼게 되는데다가, 그 잘못의 책임이 발견자 자신이 아닌 번

역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오역의 탄생이 진정으로 완료되는 순간은 바로 오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질 때이다. 누군가 한 개인에게 발견되기만 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지적되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오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역의 최종적 탄생, 다시 말해 오역의 공개적 지적은 번역자가 범한 잘못을 알리고 바로잡음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번역 텍스트를 통해 원작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번역자의 잘못으로 그릇되게 전달된 원작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고, 번역자 자신에게도 자신이 미처 몰랐던 잘못을 깨우침으로써 앞으로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또 노력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역의 지적은 단순히 윤리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역의 지적은 단순히 해당 오류를 교정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포함된 번역물의 품질이나 수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역물에 지적해야 할 오역이 많다면 그 번역물은 번역물로서 신뢰도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오역지적이 이렇게 번역물의 평가 근거로 사용될 때 그것은 결국 그 번역물을 생산한 번역가의 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지적과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역에 대한 두려움과 자의식이 강한 번역가들에게 오역의 지적은 아주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역의 지적은 단순한 도덕적 당위로 손쉽게 행해서는 안 되는 신중한 비평행위이어야 한다.

사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오역을 공개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깊은 의미와 파장을 지닌다. 오역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지적하는 행위는 하나의 사회적 행위로서 그것이 행해진 시공간의 구체적 문맥 속에서 복잡한 의미를 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누구에게 어떻게 수용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반응과 영향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함의와 반응과 영향은 특히 오역으로 지적되는 내용과 그것을 지적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령 한 평자가 어느 번역가의 번역물을 세밀히 검토하여 그 오류들을 밝혀낸 뒤 이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글에서, ‘He embraced me tightly’라는 문장을 ‘그는 가볍게 나를 포옹했다.’고 번역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 가정하자.

tightly가 어떻게 ‘가볍게’로 번역될 수 있단 말인가? 대체 무엇을 보고 번역했는가? 할 말이 없다!¹⁾

tightly가 ‘가볍게’로 번역된 것은 명백한 오역이다. 하지만 이 오역은 번역자의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순간적으로 tightly를 lightly로 착각해서 일어난 것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말하자면 번역자가 언어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서 생긴 오역이라기보다는 번역작업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차원의 소소한 오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적된 오역의 내용이 그야말로 지극히 가벼운 셈이다. 하지만 위의 지적은 그 가벼운 오류를 굉장히 심각한 잘못으로 확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적자의 개탄조의 신랄한 어조와 문맥 속에서 볼 때 위의 지적은 단순히 잘못된 번역을 지적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잘못을 근거로 해당 번역자를 꾸짖고 그의 번역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고 비난하면서 번역자에게 모욕과 공격을 가하고 싶은 욕망을 분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우 오역의 지적은 비록 내용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형식으로 인해 그것을 읽은 다른 일반 독자와 번역자에게 지적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낳고 다른 영향을 끼친다. 일반 독자의 경우, 지적자의 의도에 공감하고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겠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이 지적의 방식과 행위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더 크게 느낄 것이며, 번역자의 경우는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고 반성하는 마음보다는 있을 수 있는 소소한 실수에 대해 부당하게 큰 비난을 받았다는 억울함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번역자의 경우 특히, 번역자로서의 인격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는 한편으로 부당하게 깃밟혔다는 분노와 불쾌함과 반감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1) 이 가상의 오역지적은 이재호(2005)의 『문화의 오역』 126면, 283면, 그리고 295면에서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사용된 문장을 필자가 편의상 하나로 합성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정적인 예이다.

오역의 지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고 그 결과가 이렇다면 그 오역의 지적은 본래의 윤리적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적인 비난이나 비방, 또는 감정적 공격 차원의 것으로 떨어져버리고 만다. 그것은 번역자에게도 번역 독자에게도 심지어 지적자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비난과 반감과 증오와 반발과 갈등만 낳는 해로운 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은 오역지적이 아니라 오역지적질로 전락하게 된다. 오역지적질로 떨어진 오역지적은 그것이 낳는 불쾌한 기억과 반감 때문에 번역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오역지적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당한 낙인을 찍는 부작용을 낳는다. 말하자면 정당한 오역지적이 오역지적질이라는 누명을 쓴 채 번역에 관한 논의와 담론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 번역학계의 번역담론에서 오역지적은 바로 이 오역지적질이라는 오명과 낙인이 찍힌 채 그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인 상황이다.²⁾ 그 원인은 무엇인가?

2. 오역지적의 실종

오래 전부터 있어온 우리나라에서의 번역에 대한 논의가 학술적 차원의 번역담론으로 본격적 궤도에 오른 것은 1999년 번역학회가 창립되면서부터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본격화된 번역에 대한 공적 논의에 커다란 획을 그은 사건은 2005년과 2007년에 영미문학연구회가 2003년부터 몇 년 간 2차에 걸쳐 수행한 번역평가사업의 결과를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영미문학연구회의 이 평가사업은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기준에 의거해 우리나라 번역문화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학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단하고 밝혀낸 최초의 시도로서 그 의미가 자못 큰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번역과 번역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미문학연구회의 번역평가가 번역계에 끼친 이 파장은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다른 번역평가 작업과 비평적 성과들이 우연찮게도 비슷한 시기에 겹

2) 가령, 다음 장에서 언급되는 영미문학연구회의 번역평가 작업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2007년 이후 2015년 여름까지 한국번역학회의 학술지 『번역학연구』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번역작품의 오역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

쳐서 발표되면서 더욱 극대화되었다. 교수신문이 2005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고전 번역물에 대한 비평을 70회에 걸쳐서 게재했고 그 일차적 성과를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라는 책으로 2006년에 발행했고, 원로 영문학자 이재호가 국내의 문학과 신화 관련 번역물의 오역들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문화의 오역』을 2005년에 발행했으며, 그 바로 한 해 전인 2004년에는 서양 고전이나 신화에 관련된 번역서들에 있는 잘못 옮겨진 부분들을 지적하는 강대진의 『잔혹한 책읽기』가 출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번역평가와 비평 작업들은 그 동안 중역과 대리 번역, 그리고 부실 번역 등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던 우리 번역문화의 부끄러운 실상과 문제점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논의함으로써 번역계의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번역 평가와 비평은 현장 번역가들과 번역학계의 학자들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강한 반발과 비판을 받았는데, 그 반발과 비판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번역비평이 대부분 “번역본이 가진 오류와 단점을 파헤치는 데 치중”하는(이상원 2008: 150), “오역지적 위주의 부정적인 번역비평”(정혜용 2007: 5)이었다. 둘째, “게임의 법칙이 공정치 못”했다(김선형 2004: 78). 즉,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주관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평가와 지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상대적 우월성을 지니고 번역자의 노고를 단순한 기예점수를 매기듯 평가하는 형태”(김선형 2008: 84)가 되었다. 셋째, 번역 현장의 전체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없이 오직 번역 오류라는 표면적 현상만을 가지고 번역물 전체를 평가했다. 넷째, 결과적으로 “오역된 부분을 지적한 뒤 부실한 번역에 대한 질타와 개탄으로 끝나고 마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즉 번역비평이 “번역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데 기여하는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번역가들을 혼내고 두들기기만 하는 데 그침으로써 번역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반발만 야기했다(정영목 2004: 227-31).

영미문학연구회 평가사업단의 경우 오역과 관계된 충실성 외에도 가독성이라는 다른 기준을 사용했고 또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추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에서 요약한 비판은 상당 부분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의 번역평가와

비평작업들은 기본적으로 번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서 나온 학문적 모색으로서 번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된 것들이다. 하지만 가령 이재호의 경우처럼 유명한 번역가 이윤기의 번역에 대한 거의 인신공격성 비난에 가까운 내용이 들어 있는 등, 위의 비평들은 일부 서툰 비판의 태도와 방식으로 인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위와 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위의 비판은 대부분 현장 번역가들에게서 나온 것들인데, 이들이 위의 번역평가의 대상이 되는 쪽에 있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당연한 항변이라고 할 수 있다. 오역에 대한 번역가들의 강한 자의식과 두려움을 생각할 때, 오역의 지적은 곧바로 번역가의 능력과 자격을 묻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에, 설령 공정하고 타당하게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번역가에게는 아주 민감하게 다가오고 또 깊고 큰 상처를 주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런 민감한 오역지적이 충분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또 불공정하게 행해졌다고 한다면 번역가로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반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이재호의 경우처럼 직설적이고 거칠다 못해 인신공격적인 성격까지 띠고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오역지적이라기보다는 모욕적인 비난이나 비방행위,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비아냥”(이윤기 2013: 112)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번역비평가의 모든 오역지적은 번역가들에게 오직 “번역가를 향해 주관적인 제 독서에서 걸러낸 온갖 결함을 목청껏 외쳐댈 거대한 출구이자 총구”(조재룡 2011: 380)로서 “남의 틀린 부분만 부각시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속물적 심리”(정영목 2004: 226)에서 나온, 그야말로 지적질에 불과한 것으로만 인식되기 쉬웠을 것이다.

오역지적 중심의 부정적 번역비평에 대한 번역가들의 이러한 반발과 비판은 곧바로 번역학계로부터 강한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번역학이 본질적으로 번역과 번역가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학문이므로, 번역학은 당연히 번역가와 협동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협동관계에 있어야 할 번역가들이 공격받고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번역학계가 침묵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번역비평학회가 2007년 가을에 ‘번역비평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을 걸고 학회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정혜용 등의 발표를 통해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를 비롯한 기존의 오역지적 중심 번역비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했고, 2008년에는 번역학회의 학술지 『번역학연구』에 앞에 언급한 번역비평학

회 창립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이상원의 논문을 「문학번역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한편 영문학자 조성원은 2007년에 영미문학연구회의 잡지 『안과밖』에 실은 「번역평가 기준으로서의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영미문학연구회 평가사업단이 평가기준으로 사용한 충실성과 가독성이 기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사실 영미문학연구회가 그 동안 수행한 번역비평 작업은 완전히 오역지적 중심의 부정적 비평으로 간단히 매도할 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영미문학연구회의 학술잡지 『안과밖』이 1996년 창간호부터 2006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수행한 번역점검 시리즈의 논문들 가운데는 가령, 서경희, 설준규, 봉준수, 조철원, 조영미 등의 글들처럼 오역보다는 문학적 요소에 대한 번역의 어려움이나 번역본의 가치 등에 치중한 글들도 상당 수 있고, 평가사업의 결과물들에서 오역을 지적하는 경우도 비록 일부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대체로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방식으로 행해지곤 했다. 이런 점에서 번역학회의 『번역학연구』 2005년 여름호에서 김정우가 “국내 번역학 연구에서 비평에 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으며, 단순히 오역 사례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역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보다 나은 번역물 생산의 피드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정우 2005: 47)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2007년에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리고 갑자기 쏟아진 번역학계의 오역비평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오역지적의 상황, 즉 오역지적에 대한 번역가들의 민감한 자의식과 거부감, 그리고 비방성 오역지적질에 가까운 몇몇 부적절한 오역지적방식으로 인해 야기된 번역가들의 오역지적 전체에 대한 강한 반발과 위기감에 번역학계가 강하게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번역학회와 번역비평학회의 오역비평에 대한 비판은 번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오역지적과 이를 토대로 한 평가방식 자체의 불공정성이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번역비평의 이론적 방향전환을 제시하는 데로 나아가는데, 그 첫째는 정혜용과 같은 번역비평학회 쪽의 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으로 번역비평은 오역을 중심으로 번역을 평가하는 것보다 번역작품이 원작의 문학성을 얼마나 되살렸는가를 규명하고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번역학회

나 번역학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오역지적과 같은 번역평가는 이미 시효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낡은 번역비평방식으로 이제는 “번역결과물의 기능과 그 개별적 현상을 설명”(조성원 2007: 118)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서로 전혀 다른 번역관에 기초한 주장들처럼 보이지만 오역지적과 오역지적을 활용한 번역평가 행위를 번역비평이나 번역 연구에서 별 의미가 없거나 저급한 영역의 것으로 치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후자의 경우 최근에 번역학회의 국내 번역 연구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기술론적 번역이론³⁾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번역평가 행위 일체를 아예 번역연구의 대상으로서 시대착오적이고 부적합한 것으로 적극 배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태도를 좀더 강하게 띤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미문학연구회의 번역평가사업으로 촉발된 오역지적과 번역평가에 대한 번역가들, 그리고 번역비평학계와 번역학계의 공통된 비판과 부정적 태도는 하나의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후 번역에 대한 논의와 연구에서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낳았다. 그것은 번역담론에서 오역지적이 기피되고 실종된 현상이다. 일부 부적절한 오역지적으로 인한 오역지적 전반에 대한 번역가들의 강한 거부감은 모든 오역지적을 인신공격성 오역지적질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것이 번역학계의 강력한 공감을 얻는 한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차원적인 번역비평과 기술론적 번역연구방법이라는 번역학계의 이론적 방향전환이 일어나면서 오역지적은 번역담론에서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질이라는 낙인이 찍혀 번역에 관한 공개적 학술적 담론에서 실종된 이 오역지적은 인터넷상의 사적인 공간에서 지적질 형태의 음성적 번식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했고, 그 결과 지적질이라는 낙인은 더욱 공고히 각인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실제 번역현장의 번역가들에게는 뜻밖에도 대단히 편안한 상황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오역지적이 실종되거나 음성화된 상황에서, 즉 번역작품의 문학성을 밝혀보는 일에 치중하고자 하는

3) 여기서 언급하는 기술론적 번역이론은 투리(Gideon Toury)를 중심으로 한 텔아비브 학파의 이론과 그 이후 전개된 기술론적 번역학 연구경향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본격 또는 고차원적 번역비평계의 경향과 번역 평가를 버리고 번역의 과정과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번역학계의 대세 속에서, 번역가들은 다시금 안전한 영역에서 자신의 번역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일종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즉 번역가들은 이제 더 이상 공개적인 오역시비와 평가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번역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논의를 반발이나 비판할 필요 없이 부담 없는 시선으로 멀찌감치 바라보다가 어쩌다 이따금씩 비집고 오는 음성적인 오역지적질의 자극에 대해서만 잠깐씩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하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번역가와 번역학계의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공존이 새롭게 회복된 셈이다. 그런데 이 평화공존은 과연 바람직한가?

3. 오역지적의 가치와 필요성

번역비평은 홈즈(J. S. Holmes)가 분류했듯이 순수와 응용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번역학 연구의 두 영역 가운데 응용에 속하는 분야이다(Holmes 2004: 190). 순수와 응용이라는 말들이 시사하듯이 번역학의 응용 분야로서 번역비평은 번역에 대한 이론적 사유를 실제 번역작품에 적용하여 그것에 대한 일정한 비평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작업으로서, 기술론적 번역이론이나 기능주의 번역이론처럼 번역 현상과 과정, 또는 기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순수 번역이론들에 비해 번역 현장과 번역가의 실천에 대한 직접적 관련성이 한층 강하고 또 그 영향력과 작용력도 큰 분야이다. 다시 말해 번역비평은 번역의 이론과 실체가 만나고 부딪치는 영역으로서 번역에 관한 비평적 사유와 실천을 통해 번역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번역가와 소통을 꾀하고 나아가 번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⁴⁾

한편 번역비평은 그것이 비평(criticism)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한, 비평

4) 정혜용(2007: 328)은 이에 대해, 번역비평은 번역학의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론과 실천의 접점에서 행해져야 할 작업이고, 바로 이 점이 번역학의 [존재론적] 본질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번역비평의 상징적 위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riticism)이란 용어가 담고 있는 가치판단과 평가의 행위를 그 본질적 요소로서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즉 번역비평에서는 대상이 되는 번역 텍스트나 번역가에 대한 평가적 검토와 가치판단이 어떤 형식으로도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물론 평가와 가치판단이 번역비평의 전부 또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번역비평은 번역 텍스트의 번역 상태뿐만 아니라 번역가의 번역 전략, 번역 환경, 번역 과정 등에 대한 번역 전반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설명과 분석이 비평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비평가의--그의 번역관이나 비평관에 의거한--평가와 가치판단이 반드시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번역비평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번역, 훌륭한 번역,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그 최종 목표로 삼고서 각 번역작품이 과연 그것에 어느 정도 가까운지를 사유하고 평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비평은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 번역 평가를 시대착오적 비평방식으로 치부하며 이를 번역학 연구에서 배제하고 번역에 대한 분석과 설명만을 그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것에 기반한 근래의 기술론적 번역연구 경향은 곧 번역비평의 본질적 요소와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경향은 바로 이론과 실제의 접합과 소통을 지향함으로써 번역연구의 실천적 가치와 의의를 구현하는 번역비평이라는 응용 영역의 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번역학을 오로지 순수 이론의 영역에만 가두어 놓는 퇴행적 자기수축이라고 할 수 있다.⁵⁾

요컨대 번역비평은 번역 작품과 번역가에 실천에 대한 비평적 사유와 가치판단을 통해 번역현장과 부딪치고 교류함으로써 번역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번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적 실천이다. 이러한 번역비평의 실제 내용과 수행 방식은 현실적으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번역비평은 “출판번역물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내·외적인 용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전현주 2008: 219)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하고 검토하며

5) 베누티(Lawrence Venuti)(2006: 55-57) 역시 기술적 번역이론이 “번역가들이 아닌 학자들”을 청중으로 둔 “제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가치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다.

분석하는 작업이 그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평가는 번역본이 번역작품으로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나름의 몇 가지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때 비평가가 사용하는 기준들은 세부적으로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아서 세 가지, 즉 충실성과 가독성, 그리고 등가성⁶⁾이라는 기준들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 두 기준인 충실성과 가독성은 좋은 번역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등가성은 좋은 번역으로 올라서기 위한 충분조건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 이 세 기준 가운데 번역문이 원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옮겨놓느냐를 가늠하는 충실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1차적인 검토 단계에서 비평가가 필연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역이다. 오역은 번역이 번역인 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번역가는 오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떤 번역작품에 오역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면 그것은 그 번역이 번역으로서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평가는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 비평가는 그것을 번역물에 대한 전체적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럴 만큼 오역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사실과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오역지적이 이런 식으로 이뤄질 때 그것은 부실한 번역을 가려낼 수 있는 도구가 됨으로써 부실번역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검증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출판시장의 생리상 부실한 번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고 또 실제로 부실번역이 적지 않은 우리의 번역현실을 생각할 때, 번역가와 출판사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 이상의 번역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경계와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오역지적은 비록 부정적인 방식이지만 현실적 필요성과 유효성을 강하게 지닌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비평가가 검토하는 번역 텍스트에 오역이 적다면, 비평가는 그 번역작품이 높은 충실성을 갖춘 것임을 분명히 평가해주고 이 작품이

6) 여기서 등가성이라 함은 문학적 등가성, 즉 “번역자가 원작의 독특한 문체나 상징적 함의 등까지 자연스럽게 옮겨놓음으로써 원작이 문학작품으로서 지니고 있는 맛과 멋, 즉 문학성을 조율될 만한 수준까지 되살려내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뜻한다(이인규 2002: 256).

가독성과 등가성까지 성취한 좋은 번역인가를 밝히는 작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경우 비평가의 작업은 번역작품이 원작의 문학성을 얼마나 훌륭하게 재현해 냈느냐를 따지는 보다 본격적이고 고차원적인 번역비평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충실성을 갖춘 번역인 경우에도 번역가가 피하지 못한 오역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평가는 충실성의 높은 수준과 정도를 인정해주는 틀 안에서겠지만 적절한 공간과 형식을 빌려 간단하게나마 오역을 지적할 수 있는 여지를 언제나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비평가의 오역지적은 이미 수준 높은 번역을 생산한 유능하고 성실한 해당 번역가에게, 비판적 지적으로서보다는 번역가의 역량이 더욱 진일보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제안적 성격을 띤 도움말로써, 다시 말해 “역자의 노고에 화답하는 문화적 협동”(설준규 2004: 202)과 긍정적 소통의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협동과 소통의 차원으로 번역가가 오역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번역가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오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나아가 번역가로서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발전적인 욕구를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번역가의 실천에 긍정적인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역지적은, 비록 부실번역에 대한 검증장치로서 기능하는 경우보다는 현실적 절실성이 떨어지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가치와 필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⁷⁾

이처럼 오역은 번역비평 작업의 1차적인 검토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그런 오역을 지적하는 일은 번역비평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자 요소로서 한편으로 부실한 번역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훌륭한 번역을 보완하는 협동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하고 가치 있는 비평적 소통행위이다. 따라서 오역지적이 지적질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배척되거나 번역연구와 담론에서 저차원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폄하되어 기피되거나 배제된다면, 그것은 곧 번역의 필요조건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검증과 평가 작업이

7) 오역지적은 제한적이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가치와 필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원작을 읽지 못하고 번역만을 읽은 독자에게 오역지적은 자신이 읽는 번역물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확인해줄 수 있고, 또 번역작품 안에 무엇이 오역되었는지를 앞으로써 좀더 정확하게 원작의 내용을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신식 (2014.01.10.)의 인터뷰 기사에서 이현우의 발언 참조.

생략되고 부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번역 이론과 번역가의 실천 사이의 소통 가능성이 실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역지적이 의미 있는 비평적 실천으로서 그 정당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즉 번역자의 잘못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지적질로 떨어지지 않고 번역자와의 ‘문화적 협동’으로서 갈등이 아닌 소통의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오역지적의 방법

전현주는 부정적 번역비평이 지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번역비평방법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비평은 비평의 기술을 알려주는 비평”(전현주 2008: 217)이라고 역설했다. 전현주의 이 말은 오역지적과 관련된 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오역지적이 오역 지적질로 떨어지지 않고 번역 발전에 기여하는 번역비평의 가치 있는 일부분으로서 순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바로 ‘오역지적의 기술을 알려주는 비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오역지적의 기술은 비록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오역지적이 어떤 경우에 지적질로 떨어지는가를 되짚어보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오역지적질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자. ‘He embraced me tightly’라는 문장을 “그는 가볍게 나를 포옹했다”고 번역한 것에 대한 비평가의 지적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tightly가 어떻게 ‘가볍게’로 번역될 수 있단 말인가? 대체 무엇을 보고 번역했는가? 할 말이 없다.

이 오역지적은 무엇 때문에 지적질로 떨어지는가? 먼저, 비평가는 이 오역을 발견자의 시각과 입장에서만 바라보았지 번역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전혀 바라보지 못했다. 말하자면 비평가는 tightly가 ‘가볍게’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명백한 오역이 현상적 사실로 발견된 것에만 자신의 생각과 시선을 집중했지,

좀더 나아가 번역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명백한 오역을 범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점, 즉 오역의 배경과 원인까지 깊이 헤아려보지 못했다.⁸⁾ 만약 한번쯤 번역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면 비평가는 이 오역이 번역자의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저 순간적으로 *tightly*를 *lightly*로 착각해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착각이 번역자의 열악한 번역 현실과 조건, 가령 낮은 번역료와 빠듯한 일정 아래 급하게 또는 과로상태에서 번역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헤아림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비평가에게 오역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이런 헤아림이 있을 때, 오역의 지적은 질타나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나 공감의 성격, 심지어 변론의 성격까지도 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평가는 오역의 경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 오역은 번역자가 언어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서 생긴 오역이라기보다는 번역작업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차원의 소소한 오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오역의 내용이 그야말로 지극히 가벼운 셈이다. 하지만 위의 지적은 그 가벼운 오류를 굉장히 심각한 잘못으로 확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런 경우 오역의 가벼운 무게만큼 비평가는 가벼운 객관적 서술을 통해 오류의 내용과 교정 사항을 간단히 지적하고 제시하면 될 것이다.

한편, 위의 지적에서 비평가는 개별 오역을 곧바로 번역자의 번역능력에 대한 평가로 연결시켜서 번역가가 마치 번역가로서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비판했다. 즉, 오역의 존재는 곧 번역자의 무능력이라는 잘못된 단순 논리에 의해 개별적 오류의 발견에서 너무 성급히 번역자의 무능력에 대한 판단과 비판으로 비약한 것이다. 물론 번역을 전체적으로 살폈을 때 개별 오역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면 그것은 번역자의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번역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번역물 전체에 대한 모든 고려를 한 뒤에 최종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술되어야 할 것으로, 개

8)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오역을 분류할 때 평가자는 주로 단어나 어구 차원, 문장 차원, 통사나 문법적 오류 등 외적 형태나 성격에 따른 현상적 분류를 하는 반면 비평가는 실수와 무지, 또는 게으름, 추측, 착각 등과 같이 오역을 범하게 된 원인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종일(2001: 228), 김모세(2010: 81-87), 김선형(2008: 81), 이종인(2009: 109-125) 등 참조.

별 오역을 지적할 때는 일단 평가를 배제하고 오역의 내용에 대한 사실적 서술만을 개진해야 한다. 이것은 가벼운 오역뿐만 아니라 무겁고 심각한 오역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가령 문맥을 잘못 파악하거나 원문의 어려운 의미를 알지 못해 사소하게 보기 힘든 오역이 발견된 경우라도, 비평가는 일단은 평가를 최종단계로 미루고 오역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짚어서 왜 오역인지, 정확한 번역은 어떤 것인지 등을 논리적이고 중립적인 서술방식을 통해 ‘설명과 제시’의 차원에서 진술하는 데 그쳐야지 그것을 곧바로 평가로 직결시켜 선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역지적이 성급하게 번역가에 대한 평가와 비판으로 흐르게 되는 큰 원인은 바로 비평가가 비평을 할 때 번역자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취하기 쉬운 우월적 태도에 있다. 위의 지적질의 경우에서도, 번역가의 사소한 잘못을 개탄하는 비평가의 거침없는 언사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바로 비평가 자신이 번역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우월의식, 즉 번역자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이다. 사실 뭔가 대상을 놓고 그것에 대한 비평을 한다는 행위의 속성상 비평가는 본질적으로, 비평 대상이 되는 번역 텍스트나 번역가에 대해 ‘위에선’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존재론적 상위가 곧 비평가의 지적(知的) 또는 전문적 우월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평가는 그저 비평이라는, 번역과는 다른 일, 즉 번역가가 하는 번역이라는 일과는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번역비평이라는 작업의 필수적 절차로서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역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비평가의 작업은 하나의 작품을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는 일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전문적 작업으로서, 이 둘은 서로 그 가치와 수준을 비교해 우열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다. 바로 이런 전문적 차별성을 갖고 존재론적 상위를 지적 우월성으로 착각할 때, 비평가는 군림하듯이 번역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번역가를 가르치고 꾸짖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한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오만에 사로잡히게 된다.

번역자에 대해 비평가가 취하기 쉬운 이 우월의식은 특히 위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의식이 오역지적을 지적질로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인 모욕의 수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평가가 번역자를 내려다볼 때 그는 번역자를 존중해야 할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마음대로 다루어 되는 하급의 존재로 낮춰 보기 쉽다. 그 결과 그는 인격 모독이나 공격에 해당

하는 거친 표현을 망설임이나 거리낌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의 비평적 언사가 오역지적질로 떨어지는 결정적 순간은 바로 이때이다. 오역에 대한 비평가의 지적이 아무리 정확하고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비평가에 대한 인신 공격적 비난이나 인격모독적 표현이 덧붙여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비평이기를 그치고 비방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것은 비평가의 가학적 욕망을 해소하는 저급한 배설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오직 번역자의 분노와 반감만을 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비평가는 자신이 발견한 오역이 아무리 심각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해도 비평이 허용하는 표현의 한계를 넘어 번역자의 자존심을 해치거나 인격을 짓밟는 모욕의 수사를 구사하는 데까지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이밖에 오역지적이 번역자의 거부감과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 바람직한 지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두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하나는 비평가가 지적하는 오역은 ‘명백한’ 오역의 경우로 가능한 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역의 필연성에 대한 의식이 좀더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좀더 부연하면, 전자의 경우 비평가는 “원문의 의미-혹은 의미군-의 가능한 번역어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들, 즉 명백한 오역이거나 부적절한 번역”(김영희 2008: 53)만을 오역으로 판정하고 이를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야만 비평가의 지적이 객관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럴 때 그것은 번역자에게 쉽게 수긍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익한 지적으로 유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때, 즉 비평가가 오역이라고 지적한 것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것일 때, 그것은 결국 소모적인 오역시비와 논쟁만을 야기함으로써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비평가가 보기에 명백한 오역은 아니나 아무래도 원문의 의미와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비평가는 오역지적의 형식이 아니라 좀더 정확한 번역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오역지적이 부정적 평가와 비판보다 긍정적 협동과 대화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비평가와 번역자 양쪽 모두에게 오역은 번역에서 필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의 절대적 기본 전제로 좀더 확고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모든 읽기는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오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읽기로서 번역 역시 본질적으로 오독이고 오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 언어를

전혀 다른 언어로 옮기는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번역이라는 특수한 읽기는 더욱더 오역이 될 소지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오역은 번역의 본질적 존재조건이다. 더구나 이런 존재조건을 지닌 번역이 실제로 수행될 때, 즉 몇 백 쪽의 외국어 문장을 모국어로 하나하나 옮겨나가는 기나긴 작업을 할 때, 불완전한 인간의 행위인 번역에서 오역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즉 오역은 번역의 필연적 현상이다. 바로 이러한 오역의 본질에 대한 인식, 즉 번역의 본질적 조건이자 필연적 현상으로서 오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비평가의 의식에 확고한 기본 전제로 작용한다면, 오역을 번역자의 능력이나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번역가가 미처 피하지 못한 오류를 알려주는 도움과 봉사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인식적 전환이 비평가에게 좀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번역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오역의 필연성에 대한 의식이 좀 더 분명하게 각인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번역가가 오역을 번역의 숙명적 조건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이 범할 수밖에 없는 필연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다면, 번역가에게도 역시, 오역을 자신의 무능과 무자격을 드러내는 것,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변명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것, 그래서 미처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선선히 긍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적 전환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인식적 전환이 일어날 때 궁극적으로, 번역가가 비평가의 오역지적을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각성과 즐거움의 순간으로 ‘환대’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바람직한 오역지적 방식을 위해 비평가에게 필요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뭉뚱그려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중함과 번역가에 대한 존중의 태도이다. 먼저, 오역을 지적할 때 비평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중함이다. 오역은 번역가의 능력과 연결되기 쉬운 문제이므로 오역지적은 번역가에게는 치명적 상처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행위이다. 번역자가 오역에 대한 두려움과 강한 자의식을 지니면서 오역지적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역을 이야기할 때의 이야기 방식, 번역 비평 시의 수사양식”이 “우리의 번역문화에서 소통보다 갈등이 조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성기의 지적(전성기 2008: 137)이 타당한 것도 바로 오역과 오역지적이 지닌 이런 민감성 때문이다. 따라서 비평가는 오역과 오역지적에 밀착되어 있는 이러한 민감성과 문제성을 분명히 의식하고 신중하게 비평에 임해야 한다. 번역가의 입장에서 오역을 바라보며 현상 너머의 원인과 배경을 헤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오역의 경중을 정확히 가늠해 적시하는 한편 어떤 오역이든 선부른 평가를 삼가고 먼저 객관적 사실의 진술에 집중하는 것, 불필요한 오역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백한 오역만으로 지적의 대상을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는 추가적인 의견 제시의 형식을 취하는 것 등은 바로 이런 신중함의 덕목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비평가의 신중함은 그 바탕에 기본적으로 번역자를 존중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비평가의 비평은 번역의 본질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번역자에 대한 경의와 존중의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번역자는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그 두 언어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하는 존재이다. 이때 그는 한편으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 다리를 놓는 소통작업의 원천적인 불가능성”에 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 매 순간 “맞닥뜨리는 갈림길에서 끝없는 선택을” 해나간다(김선형 2008: 73-74). 번역자의 이 시지포스 같은 도전, 즉 “불가능해 보이는 번역이라는 도박”(리콤폴트 2006: 70)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 나가는 지난한 작업의 성격을 비평가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자에 대해 경의와 존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비평가가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비롯해, 비평가가 우월의식에서 군림하듯 번역자를 내려다보며 혼내거나 모욕의 수사를 휘두르지 않는 것, 오역을 번역가의 숙명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도움과 봉사의 차원에서 오역지적을 수행하는 것 등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존중과 경의의 의식이 비평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다.⁹⁾

이처럼 신중함과 번역가에 대한 존중의 형식으로 수행될 때 오역지적은 비

9)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왕은철(2007: 126-133) 역시 비평가가 번역비평을 할 때 “자신의 우월한 입장을 포기하고” “신중하고 겸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로소 지적질로 떨어지거나 지적질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생산적인 소통의 한 형식으로서 번역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비평적 실천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되는 오역지적은 따라서, 번역에 원작의 문학성이 얼마나 잘 되살려졌는가를 평가하는 본격적인 고차원의 비평이든 그런 본격 “비평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번역본들을 걸러내는 기본적인 수준에서”(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6) 충실성과 가독성 같은 번역의 필요조건을 따져보는 기초적 단계의 평가이든, 번역비평에서 필요하고 장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번역비평이 궁극적으로 번역과 번역가를 위한 작업이라고 할 때, 즉 번역가의 공로와 기여를 인정해주는 한편 좋은 번역이 나오도록 번역가를 자극하고 격려함으로써 좋은 번역이 독자에게 주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번역 수준의 제고와 번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번역비평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때, 오역지적은 “번역과 평가의 행복한 협동”(김선형 2004: 74)의 실현에 어찌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신중함과 존중의 원칙 위에서 협동과 소통의 방식으로 행해진 오역지적은 번역가가 미처 깨닫지 못한 오류를 번역가에게 ‘적절하고 바람직하게’ 알려줌으로써 번역비평의 다른 요소들보다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번역가에게 준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덧붙이건대, 번역학계에서 적절한 방식의 오역지적이 활성화되는 것은 번역가를 사적인 오역지적질의 공격과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번역학계에서 바람직한 오역지적의 모범이 공적인 방식으로 확립되고 그것이 활발하게 실천된다면, 그것은 인터넷상의 음성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악성 오역지적질의 확산을 억제하고 그 파괴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부차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번역에 대한 공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는 번역학계에서 오역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존중과 협동의 자세로 바람직한 방식의 오역지적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오역과 오역지적에 대한 자연스럽고 건강한 풍토가 조성된다면, 오역지적질이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지적질의 파급력과 영향력도 감소할 것이며 결국은 번역가들의 지위가 그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도 바람직한 오역지적은 번역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셈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대진 (2004) 『잔혹한 책읽기』, 서울: 작은이야기.
- 김모세 (2010)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마테오 팔코네 Mateo Falcone 번역품질평가」, 『외국문학연구』 38: 77-118.
- 김선형 (2004) 「번역과 평가의 행복한 협동을 꿈꾸며」, 『안과밖』 17: 74-82.
- 김선형 (2008) 「문학번역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평가」, 『안과밖』 24: 63-85.
- 김신식 (2014.01.10.) 「오역지적질로 그칠 것인가? 더 좋은 독서를 원한다!」, 『프레스리안』, 2015년 10월 7일 검색.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1774>
- 김영희 (2008) 「문학번역 평가의 의미와 한계」, 『안과밖』 24: 33-62.
- 김정우 (2005) 「한국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리콰르 P./윤성우, 이향 옮김 (2006) 『번역론』, 서울: 철학과현실사.
- 먼디 J./정연일, 남연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베누티 L./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 과주: 열린책들.
- 설준규 (2004) 「토니 모리슨 소설 번역점검」, 『안과밖』 16: 201-224.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7)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2』, 서울: 창비.
- 왕은철 (2007) 「외국소설의 번역과 번역비평의 문제」, 『안과밖』 23: 120-134.
- 이상원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9(2): 149-165.
- 이윤기 (2013)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 이인규 (2002) 「찰스 디킨즈 소설의 번역점검」, 『안과밖』 13: 254-279.
- 이재호 (2005) 『문화의 오역』, 서울: 동인.
- 이종인 (2009) 『번역은 글쓰기다』, 서울: 즐거운 상상.
- 이종일 (2001) 「번역의 어려움과 재미」, 『안과밖』 11: 223-239.
- 이형진 (2008) 「문학번역 평가의 딜레마와 번역비평의 방향」, 『안과밖』 24: 86-112.

- 전성기 (2008)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전현주 (2008)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연구』 9(1): 215-257.
- 정영목 (2004) 「영미언의 번역평가사업에 대한 단상」, 『안과밖』 16: 225-231.
- 정혜용 (2007) 「번역비평 규범으로서의 가독성과 충실성 개념」,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0: 1-17.
- 정혜용 (2009) 「문학번역평가에서 문학번역비평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67: 299-316.
- 정혜용 (2012) 『번역논쟁』, 파주: 열린책들.
- 조성원 (2007) 「번역평가 기준으로서의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하여」, 『안과밖』 23: 96-119.
- 조재룡 (2011) 『번역의 유령들』 서울: 문학과지성사.
- 조재룡 (2015) 『번역하는 문장들』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한국번역비평학회 (2011) 「기획 인터뷰: 출판 기획·번역 네트워크 ‘사이에’를 만나다」, 『번역비평』 5: 10-44.
- Holmes, J. S. (1988)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72-185.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ed.) 2004.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bstract]

In Defense of Discussion on Translation Errors

Lee, Inkyu
(Kookmin University)

Since 2007, when the Scholars for English Studies in Korea published *In Search of Good Translations of English Literary Classics*, discussion on translation errors has disappeared from translation criticism in Korea. Translators protested the SESK's error-based evaluation of translation was not fair. Moreover, some critics' personal insults on the translators incurred a strong consensus against error-based evaluation. The descriptive trend of translation studies and major critics' disrespect to discussion on errors also helped the disappearance of discussion on errors from the discourse on translation.

However, discussion on errors should not be neglected in translation criticism. A critic's first work for his or her translation criticism is to compare an original text and its translation and to evaluate how faithful the translation is to the original text. Discussion on errors is, therefore, the essential part of translation criticism. Critics' discovery and correction of errors can lead to cooperative communication with translators, for translators will be given opportunities to realize their mistakes and stimulated to produce better translations.

This cooperation between critics and translators can be attained through a proper method of pointing out errors. Critics should be able 1) to discern and explain the causes and backgrounds of errors; 2) to use neutral rhetoric in pointing out the errors and refrain from hasty evaluation of the whole translation; 3) to stay away from the false sense of superiority over the

translator; 4) to deal with only clear and indisputable mistakes; 5) to always bear in mind the fact that errors are unavoidable in translation.

▶ Key Words: translation criticism, error analysis, translators and critics, cooperative communication, rhetoric of critical discourse.

이인규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iklee@kookmin.ac.kr

관심분야: 소설번역, 번역비평, 영국소설.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7일